조지 부시 대통령은 단거리 핵무기 감축회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 일부에서의 서독주둔 미군 철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NATO의 유럽 국방수뇌들은 美·蘇간 단거리 핵무기 감축회담을 주장하는 서독의 요구에 따라 회담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서독의 요구를 무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소련의 군사력에 대항하고 서구유럽의 침공위협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NATO 회원국중 어느 나라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NATO의 지도자들이 신중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한 군사전문가들은 소련이 NATO보다 3배의 우세를 보이는 전차와 4배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병력을 대략 1대 1 정도로 균형을 맞추기까지는 NATO가 단거리 핵무기와 고도기술의 재래식 병기로 서유럽을 방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나 서유럽 어느 국가도 다른 대안이 없는 셈이다.

NATO의 핵 방위계획 축소와 함께 이를 전차와 병력의 증대로 대체하려는 NATO의 계획은 소련의 상호군비감축에서의 이탈과 美·蘇의 전략 및 전술핵무기 감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서독이 단거리 핵무기 감축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미국의 고위 군축전문가들 가운데 서독의 노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본격적인 차원에서 이 회담이 받아들여진다면 소련으로부터 핵무기 미보유정책을 얻어낼수 있을 것이다. 즉 상호군비감축은 유럽이 최초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한 결과에 따라 증강된 소련 군사력을 감축할수 있다.

단거리 핵무기 회담과 상호군비감축의 진행과 더불어 서독 정부는 NATO와 바르샤바조약국간의 전반적인 군축회담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 서독은 유럽에서 바르샤바조약국의 침공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인가?

美 대통령은 서독의 콜수상이 단거리 핵무기 감축회담을 제안하였을때 왜 그렇게 완고하게 대응하여야 했는가? 미국의 거부는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할때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콜수상과 고르바초프가 현명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거리 핵무기에 관한 협상에 임하게 하거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리고 기존의 제안보다 더 포괄적인 소련의 제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미 행정부의 협약은 유럽의 여론과 정치적 압력으로 소련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을 것이다.

미군철수에 관해서 미 의회 고위당국자들은 서독에게 지적한 것처럼 「핵무기 미보유와 미군철수」는 서독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던 1950년대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또는 앞으로 수십년내에 NATO가 조약기구로서 유지할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공동방위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미국이 서독이나 다른 동맹국에게 또는 그 반대로 서독이나 다른 동맹국이 미국에게 최후의 통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막대한 핵무기나 재래식무기의 감축없이 서독에서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포기한다면 서독주둔 미군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다.

미·소 양국은 군사력과 안보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대의 군사력 보다 최소의 군사력이 상호안보에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미·소 양국정부가 긴급한 비군사적문제에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유럽에서 미·소의 단거리 핵무기 감축과 비핵

무기 정책은 NATO와 바르샤바조약국에게 더 유용한 것이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바르샤바조약군과 직면한 NATO군은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로 균형있게 무장하였지만 핵무기 없이 재래식무기만으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NATO의 국방장관들이 정치적 외풍을 견딜 냉철한 자세와 NATO의 비핵무기 증강을 위해 1980년대에 계획된 서방의 고도기술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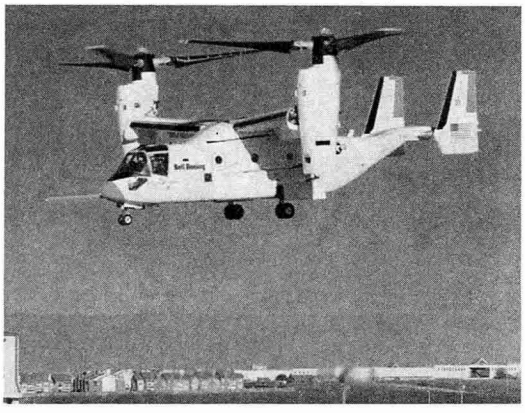
4월말 딕 체이니 美 국방장관은 금년 2월 의회에 제출된 1990년도 예산중에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V-22 경사회전익 Osprey기등에 1백억달러이상이 삭감된 것을 알게 되었다.

지출삭감과 단거리 핵무기 그리고 NATO의 전쟁억지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즉각적인 NATO의 전투능력에 대한 대답은 「NO」이다. 사실상 V-22기는 NATO의 주요 전투작전지역 외곽에서 발생되는 작전에 배치되기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이와같은 항목에서의 삭감은 우연하게 전쟁문제에 대하여 NATO를 전쟁에 끌어들이거나 의견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지역에서 미국의 전쟁억지력과 방어능력을 감소시킬 소지가 있다. 이것의 실예는 NATO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소련에 대한 억지정책을 해제하였을 때 발생된 페르시아만 분규이다.

美 Bell/Boeing팀의 경사회전익 V-22 Osprey



中東, 中美, 태평양지역 그리고 다른 비유럽 지역에서 미 군사력의 감축은 NATO에게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방측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더구나 B-2기와 V-22기는 NATO에 필수적인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모든 NATO 항공기는 바르샤바조약국의 레이다에 취약한 레이다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스텔스 전략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에는 지속적으로 스텔스기의 실험자료가 포함된다. 게다가 V-22기의 잠재적인 전투수행능력으로 인하여 NATO에게는 더 큰 개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여러방면에서 NATO의 전쟁수행능력을 신속하게 확대시킨다. 각 항공모함은 여러지역에서 미군과 NATO군에 부과된 임무수행 보장에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기술적으로 열세이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군축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전형인 것이다. 단거리 핵무기 감축협상이 군축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 그런 우수한 재래식무기는 바르샤바조약국 공격능력에 취약점을 안겨줄 것이다.

핵무기 군축회담이 실패하고 NATO와 바르샤바 침략국에 전술핵무기가 남아있다면 그러한 재래식무기는 아직도 효과적인 억지책으로서 타협안이 될 것이다.

길은 두 가지가 있다. 과거 수많은 미 국방장관들은 어려운 선택을 하여왔다. 한가지 길은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증대 및 유지이고, 다른 한가지는 감축이다. 결국 후자의 선택은 큰 희생을 치루는 것이다. * 〈Miltech 89/6〉